

영아 오투약 사망 은폐 간호사들 실형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유기죄 직권 적용·유기치사는 무죄 판단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에게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명 간호사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간호사 진모씨와 강모씨, 수간호사 양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진씨와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양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진씨는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이던 12개월 영아에게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담당 의사는 이 영아에게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mg을 희석한 후 네블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지만, 진씨는 에피네프린 5mg을 그대로 정맥 주사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제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로, 영아에게 정맥주사로 투여할 시 적정량은 0.1mg이다. 적정량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을 과다 투여 받은 영아는 이튿날 숨졌다.

진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강씨는 약물 투약 직후 영아의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을 알았지만 이를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

를 받는다. 또 강씨는 처방 내용과 처치 과정 등 의료기록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수간호사인 양씨 역시 의료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담당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투약 사고 후 환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사고를 은폐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직권으로 유기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간호사들의 은폐 행위 때문에 담당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도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유기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사망은 약물 과다 투여에 의한 것이 은폐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처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보다 축

소된 범죄 행위에 한해 직권으로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을 축소사실 인정이라고 한다. 다만 재판부는 유기죄가 인정된 만큼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따로 주문을 통해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수간호사 양씨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병원과 의사, 간호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을 위해 각각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돈을 냈다고 형량을 줄여주느냐"고 강하게 반발하다 퇴정 당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지게차 화재 초기 진화해 대형 피해 막아

동부소방 성산의소대 강용대 반장 10일 화재 진압

야간에 발생해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지게차 화재를 의용소방대원이 기지를 발휘해 신속히 진화했다.

11일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54분쯤 서귀포시 성산을 수산리의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게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강용대 성산의용소방대 대응반장으로 화재 장소 인근에 있던 강 반장은 '뽕'하는 소리와 함께 화염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뒤 상수도를 이용해 진화에 나섰다. 강 반장의 빠른 진화 덕에 불길은 소방당국 도착 전 모두 진화됐으며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현장 안정화 조치와 화재 조사 등을 실시했다.

당시 화재 현장에는 다수의 지게차와 창고 등이 있어 강 반장의 빠른 초기 진화와 119 신고가 없었다



강용대 대응반장

면 큰불로 번져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게차 1대가 부분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22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강용대 반장은 성산을 온평리에 거주하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에 성산의용소방대에 입대해 2016년부터 대응반장 직을 맡아 지역재난 대응을 위한 소방업무 보조와 의용소방대원들의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강 반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며 "평소 훈련하던 대로 침착하게 움직인 결과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 결과 지게차 배터리 단자에 스파크 흔적 등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전기적 단락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청소원에 마약 투약·조건만남 제주지법, 40대에 징역 4년형

가출 청소년을 피어 조건만남을 하고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40대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성 매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17)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산 혐의와 자신이 갖고 있던 대마초와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이 청소년과 함께 총 9차례에 걸쳐 흡입·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만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하고 대마를 흡입하도록 했다"며 "신체·정신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민기자



장애없는 세상을 위해... 제23회 제주시 장애인한마음대회가 개최된 11일 한라체육관 인근에서 장애인권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상민기자

제주영어도시 인근서 상습 절도 10대 8명 입건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10대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고등학교 A군 등 7명과 중학생 1명 등 8명을 특

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9일까지 자전거 12대(대당 50만~420만원 상당)와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등 한달가량

기간에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훔친 현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일 이들 전원을 주거지 등에서 검거했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백근탁기자 haru@ihalla.com

"과징금 폭탄으로 신종 노조탄압"

특수고용 노동자 전국 행동 어제 기자회견

특수고용 노동자 전국동시발 제주지역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1일 정부제주지방중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조를 탄압하며 노동자를 죽이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설노조를 조폭 집단으로 매도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 불법 행위로 취급하며 무리한 수사를 단행한 윤석열 정권 때문에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양희동 열사가 본인의 목에 불을 지피고 산화했다"며 "양희동 열사는 윤석열 정권의 살

인에 희생됐다"고 했다.

이어 "건설노조의 주요 구성원인 특수고용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봉에서 제주, 부산, 울산, 대전 등지에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됐고 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며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신종 노조 탄압의 수단이 된 과징금 폭탄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우리는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향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영기자

▶바로잡습니다 10일자 4면 <애월 연에도 발생했다고 보도했지만 2016년에는 낙석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 잡습니다.

주택·아파트·상가 빌딩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시설물·금속·창호·도장·방수
조경시설물·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 4층

킴/건축디자인

010-4324-7080

F:064)723-1045 / E:ehdrb0064@hanmail.net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辛) 一(一) 祚(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정소

신축 / 중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락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5월 가정의달 부모님을 위한 선물증정 이벤트

① 20만원 상당 산삼배양근 ② 15만원 상당 uv진자습기(가정용)
*1번 소진시 2번 사용품 제공합니다.

그랜드보청기
하트브랜딩 대상!!

2021 10TH 4차
하트브랜딩 대상 1차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촌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심의회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소
한라체육관
● 한국병원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신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